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다양한 요구 반영해 공공시설, 유형 다양화·다차원적 입지기준 필요

인구절벽시대,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미래세대 특성에 주목해야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45년에는 845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고, 도시의 성장을 전제한 도시계획은 전환점을 맞았다. 이제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 서울을 목표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주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¹⁾는 금융위기와 저성장, 기후변화와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로 예전 우리가 살아온 도시와 다른 서울을 기대하고 있다. 인구감소시대의 인구원단위 기준의 도시계획은 한계를 맞았고, 공공시설 역시 수요자 중심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미래세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용시설의 변화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알파세대, 평일 일과 중 9시간 이상 양육자와 보내고 시설의존도 높아

알파세대²⁾는 하루 중 1시간 반 정도를 혼자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양육자나 형제·자매, 친구와 함께 보낸다. 평일 일과 중 부모, 조부모 등 친척이나 대리양육자와 함께하는 활동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9시간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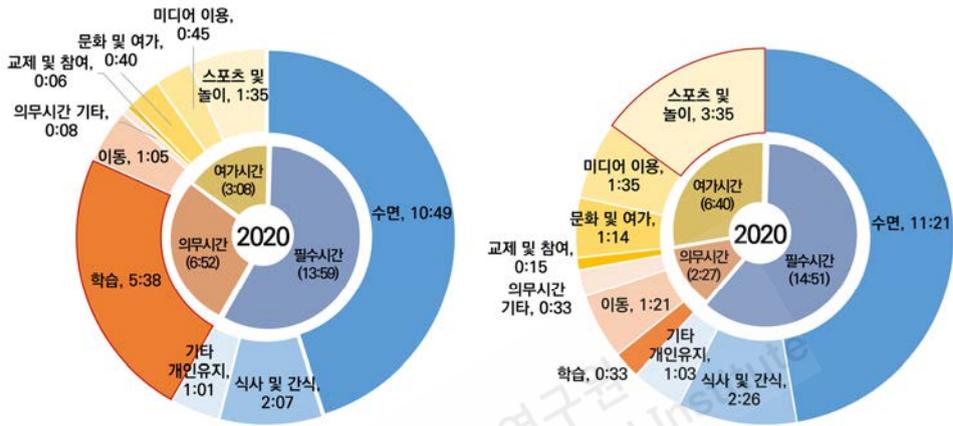
알파세대에게 학습과 놀이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알파세대는 수면시간을 포함한

1) 이 연구에서 미래세대는 과거와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세대로 전 연령층에 분포하는 다양한 세대를 모두 포괄한다.

2) 미래세대는 전 연령층의 새로운 세대를 의미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건 변화로 과거와 생활양식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만 9세 이하의 알파세대에 주목했다.

개인유지 시간이 성인에 비해 길고, 활동시간의 86.4%를 학습과 놀이에 사용한다. 이 중 대부분의 시간은 교육·보육기관 및 놀이·체험시설에서 보낸다. 미취학아동 생활시간조사 결과 하루 일과 중에 알파세대의 98.2%는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95.8%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세대의 하루는 평일에는 보육·교육기관에서 학습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지배적이고, 주말에는 스포츠와 놀이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림 1] 알파세대의 평일(좌) 및 주말(우)의 시간사용 패턴

사회·기후변화, 부모세대 요구 등으로 다양한 알파세대 이용시설 등장

핵가족화가 되면서 육아를 공유할 사람이 줄어들고, 주요 주거양식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공동육아를 담당하던 골목이 사라졌다. 아동학대나 차량사고 등의 위협에 아이들이 노출되면서 과거에 비해 부모세대의 양육부담은 크게 늘었다. 밀레니얼맘은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한 시간을 더 사용하고 싶은 반면,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해졌다.

알파세대는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학습과 놀이에 쓰고 있지만, 부모세대의 73.8%는 놀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59.1%는 학습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양육자의 자기시간 확보 및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가 대리양육 및 시설이용으로 나타났고, 유료 실내놀이시설과 영어유치원 등의 반일제 기관이 크게 늘었다. 음식점·쇼핑공간과 결합된 키즈카페 등 알파세대 이용시설과 양육자의 이용시설이 복합되거나 학원과 마트

등 이종업종의 시설유형들이 인접한 입지를 선호하게 되었다. 기후환경적 변화도 알파세대의 이용시설에 영향을 미쳤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아이들의 주요 놀이공간은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했고 2020년 팬데믹으로 다시 실외공간의 놀이 및 체육시설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일부는 민간 위주로 공급되고 지역 간 불균형도 발생

어린이 놀이시설은 58.86%가 주택단지 내에, 15.19%는 보육·교육시설에 입지해 있어 상당부분 사유재이거나 클럽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간 실내놀이시설은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이용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외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민간과 공공의 시설과 서비스 차이 역시 공공시설의 공급계획에서 유념해야 할 요소다.

행정동 단위로 살펴본 놀이시설의 분포는 만 0~9세까지의 어린이 인구분포와 관련성이 낮아 수요와 공급 간 공간적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이들의 이동거리를 고려한 최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도서관은 행정동 내에 1개소도 없는 지역이 많았고, 박물관과 숲체험장은 시설특성 때문에 도심과 산지가 있는 지역 위주로 입지한 것을 확인했다.

일상·공간 불일치 없애려면 공공시설 유형 다양화, 공급방식 고민 필요

과거에 비해 늘어난 자녀양육의 부담과 학습 및 놀이에 대한 높아진 요구로 새로운 유형의 알파세대 이용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은 민간시설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또는 계층 간 소외·격차는 공공이 개입하여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요구에 맞는 시설유형을 발굴하여 공공시설로 공급하는 대안과 더불어 종전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시설공급기준은, 양육자 의존형 생활행태를 보이는 알파세대의 시설이용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시설 과소 또는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상과 공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알파세대의 이용시설 중에는 시설의 특성이나 역할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도 있고, 시설공급

이 어려워 공급이 부족한 과소지역이 많아 다른 시설에 부속되거나 연계하여 사용해야 할 시설유형도 있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급유형과 입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대안과, 기존 공공 및 민간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협업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획단계의 재편, 기존 공공시설의 DB구축,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알파세대 이용시설, 성격·접근방식 고려해 다차원적 입지기준 마련해야

알파세대의 일상적인 이동거리는 도보 10분, 차량 17분을 넘지 않는다. 이용 빈도가 낮은 놀이·체험시설을 방문할 때도 차량 40분 이동을 넘기지 않는다. 알파세대 이용시설의 입지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알파세대 이용시설의 수급을 공간적으로 일치시키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공공시설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입지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급방식이나 시설복합화 등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

어린이 숲체험장이나 박물관과 같이 입지를 조정하기 어려운 시설은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시설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근린에 입지 가능한 유사 시설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최우효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이용이 한정된 민간시설을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건설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공급된 주민공동시설은 참여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 도시계획 위해 서울시민 세대별 생활양식 변화 파악 필수

서울시민의 생활시간 변화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특정 시설의 수요변화로 이어진다. 생활시간 변화는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 이를 활용하면 정책대상자를 특정하기 용이하고 미래 공공시설의 수요를 예측해볼 수 있다.

모모세대³⁾의 일과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한 여가시간이 늘었고, 학교에서의 필수 학습

시간은 줄어들었으나 학교 외에서 학습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MZ세대는 평균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미혼율이 증가하면서 20대는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을 돌보는 데 이전 세대에 비해 적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30대는 영유아 등 가구원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했다. 중장년층은 과거에 비해 업무시간을 적게 쓰고 있지만,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신노년은 더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가정관리보다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교제 및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계층으로 바뀌고 있다.

전 세대를 아울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지만, 각 세대가 당면한 현안과 가치관이 바뀌어 생활모습도 요구하는 시설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도시계획이 총량적 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수요자인 서울시민들의 세대별 생활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3) 모어 모바일(MOre MObile) 세대로 이 연구에서는 10대로 한정했다.